

# “뮤지션의 꿈’ 비행중입니다”

광주 출신 인디뮤지션 '레슬리'

고교때 평화통일 랩 대통령상  
파일럿 에세이 읽고 조종사에 매료  
항공 콘셉트 '트랜스폰더' 앨범  
광주음악창작소 지원 받아 제작  
주체적인 인생 찾아가는 메시지  
후속 앨범 '트랜스폰더2' 준비 중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We'll be taking off shortly. Please fasten your seatbelt and enjoy a safe flight."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벨트를 착용해 주시고, 안전한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비행기 안을 채운 웅성거림 위로,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낯선 도시로 떠나는 여행자, 중요한 계약을 품은 비즈니스맨, 그리고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이들까지.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의 마음엔 똑같이 설렘이 담겼다.

비행의 설렘과 조종석의 낭만을 담은 음악이 하나의 앨범에 담겼다. 바로 인디뮤지션 Leslie(레슬리)의 EP "TRANSPONDER" (트랜스폰더-응답기).

기자는 최근 강남로 한 카페에서 레슬리(본명 이지원, 여·24)씨를 만나 그의 꿈과 낭만,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광주 출신의 뮤지션인 그는 스스로를 '항공 덕후'라 소개한다. 중학교 시절 합창에 빠져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평화통일 랩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며 음악적 재능을 입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파일럿의 에세이를 읽고 조종사의 세계에 매료됐다. 김포공항 항공박물관을 찾아가 실제 은퇴 기장에게 조연을 구할 정도로 진지하게 빠져들었다. "항공 덕후, 조종사 지망생이자 음악인으로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항공 콘셉트의 앨범 '트랜스폰더'가 탄생했다.

이번 앨범의 각 곡은 조종사가 지상 관제소와 통신할 때 사용하는 코드에서 따왔다. 수록곡 '1200(시계비행)', '7600(통신두절)', '7700(비상선언)'은 실제 항공 코드이며, '0912(아비정전)'은 예외적으로 그가 가장 존경하는 배우 장국영의 생일을 담은 한정곡이다. 'Leslie'라는 예명 또한 장국영의 본명(Leslie Cheung)에서 따왔다. "그분의 이름을 물려받고 싶었어요. 장국영 배우처럼 멋진 사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도 자연스럽게 생겼죠."

각 곡에는 그의 취향과 신념이 촘촘히 담겼다. '0912'는 장국영을 기리는 곡으로, 청춘의 방향을 상징하는 영화 '아비정전'에서 영감을 받았다. '1200'은 과거 자신을 휘둘렀던 음악 선생님과 그의 관계를 비유한 곡이다. 조종석의 계기판만을 바



인디뮤지션 레슬리가 최근 항공 콘셉트 앨범 '트랜스폰더'를 발매했다.

라보던 비행에서 벗어나, 눈으로 길을 찾아나서는 '시계비행'처럼 자신의 길을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메시지를 담았다.

타이틀곡 '7600'은 호수에 있는 연인을 향한 장거리 비행을 모티브로 멀어지는 관계 속의 애뜻함과 단절을 그려냈다. 마지막 곡 '7700'은 음악을 포기하려 했던 시절, 미술작품을 통해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게 된 경험을 비상선언으로 비유했다. 고희, 바스키아, 김환기, 천경자 등 그가 사랑하는 예술가들의 이름도 등장한다.

앨범은 광주음악창작소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다. 레슬리는 아이디어 구상부터 디자인 레퍼런스, 뮤직비디오 연출까지 전 과정을 직접 기획했다. 김포공항 시뮬레이터 센터를 섭외해 기장석에 앉은 장면을 촬영했고, 자비로 제작한 유니폼까지 갖춰 현실감을 높였다. 뮤직비디오 제작에

만 수백만 원을 투자했다. "상상만 하던 장면을 실제로 구현했을 때, 정말 살아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간직한 꿈의 일부였거든요."

비행과 조종에 대한 열정이 가득 담긴 앨범의 등장에 SNS 반응도 뜨거웠다. 전현직 조종사들이 "꿈을 응원한다. 필요한 게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현재 그는 후속 앨범 '트랜스폰더2'를 준비 중이다. 전작에서 부족했던 항공 용어의 정확도를 보완하고, 실제 부기장들의 피드백도 반영할 계획이다. "언젠가 '항공 하면 떠오르는 뮤지션'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장국영처럼 멋지고, DPR처럼 팀을 꾸려 나가고 싶어요. 코첼라 무대도 꿈꾸고 있고요. 저의 비행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임윤찬 콩쿠르 실황, 그라모폰 '이달의 음반'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결선 실황을 담은 음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이 세계적 클래식 전문지 영국 그라모폰이 선정한 7월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이름을 올렸다.

24일 그라모폰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비롯해 크로아티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보얀 치치치가 하인리히 비버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녹음한 음반 등 10장이 7월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됐다. 에디터스 초이스는 매달 그라모폰이 뽑는 뛰어난 클래식 음반이다.

그라모폰은 임윤찬 음반 리뷰에서 "이미 전설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연주"라며 "작곡가와 악보, 솔리스트, 지휘자, 오케스트라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흔치 않은 순간 중 하나였다"고 평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2022년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에서 선보인 연주를 담은 음반



으로 지난달 발매됐다. 임윤찬은 이 연주로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으며, 실황 영상은 현재 유튜브 조회수 1천700만회를 넘겼다. /연합뉴스

## 광주시립극단 '소녀들' 객원배우 공모

광주시립극단이 오는 9월 세 차례에 걸쳐 선보일 연극 '소녀들'의 객원배우를 공개 모집한다. 원서 접수는 7월 31일까지이며, 연습과 공연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연출에 김지훈.

이번 작품 '소녀들'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모티브로 한 창작극으로, 시립극단 제3회 창작희곡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역사의 시대를 살아낸 소년·소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과 폭력의 참혹함,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조명한다. '찾아가는 문

화공연'으로 기획된 이번 작품은 광산구 역사문화공원, 광주시청 시민홀, 북구 양산호수공원 등 야외 공연장에서 무대에 오른다.

모집 인원은 남자 배역 3명(최창선, 최두석, 최병선 등), 여자 배역 4명(최연선, 육남, 장매성, 금명 등)으로 총 7명이다.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오디션은 7월 7일 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지정 연기, 자유 연기, 면접 등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7월 9일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응시 자격 요건 및 세부 사항 역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소설 문학 이을 차세대 작가는 누구?

수림문학상 작품 공모 27일 마감

제13회 수림문학상 작품 공모가 이달 27일 마감된다.

공모는 예비 작가나 등단 10년 미만의 작가가 쓴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작은 인터넷을 포함해 어떤 매체에도 발표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0장 이상이다. 원고지 20장 분량 줄거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림문학상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국내 문화·예술 분야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수림문화재단이 2013년 공동 제정했다.

차세대 소설 문학을 이끌 재능 있는 작가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당선자에게는 국내 문학상 중 최

고 수준인 상금 5000만원을 수여한다. 당선작이 없으면 가장(상금 2500만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응모작은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파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문서 파일을 종이에 출력해 우편(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 DB-출판부 수림문학상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표지에는 응모자 이름,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인 27일 0시까지,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다. 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수림문학상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상작은 9월 개별 통보 후 온라인을 통해 발표하며 시상식은 단행본 출간과 함께 11월에 열린다. /연합뉴스

그린 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